광산구 주민들 "농경지 침수 대책 세워달라"

사호·봉흥·본촌 3개 마을 피해

광산구, 배수문 정비하기로

주민들 "배수펌프장 설치 먼저"

광주시 광산구가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를 10여년간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산구는 수년간 제기된 지역 농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오는 2018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핵심 시설인 배수펌프장 설치 등이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광산구와 광산 사호·봉흥·본촌 등 3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역 내 50여ha의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광산구 사호동에 금석보 배수문을 설치했으나 제 구실을 못하면서 해마다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농민들은 홍수때 황룡강으로 물을 빼내기 위해 수문을 열고 있는 데, 오히려 배수문의 높이보다 황룡강의 수위가 높아 물이 농경지로 역류하는 현상이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산구도 해당 지역이 황룡강 상류의 저지대인 탓에 홍수시 역류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토사적체 및 시설 노후화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침수 지역 농민들은 벼 침수 피해로 매년 수확량 30% 하락, 침수 벼 저가 수매에 따른 소득 감소, 병충해 창궐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배수 펌프장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의 침수피해는 농사 자체를 포기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배수문 설치 이전에는 3개 농가에서 7000여평의 시설 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했으나, 침수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농사를 포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상습침수지역 내 4000여평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 임광석(50·사호동)씨는 "배수문 설치 이전보다 침수시간이 더 길어져 피해가 크다"면서 "수확량 감소는 물론 침수한 벼는 사료용 등으로 별도 수매하는 탓에 제값도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침수 이후에는 잎마름병 등 각종 병해충까지 극성을 부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마을 김현님(여·61)통장은 "인근 용진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과 뒷산의 빗물까지 농경지로 유입되는 만큼 배수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0여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해당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번 배수개선사업으로 배수문 정비 1개소, 배수로 정비 2.6㎞, 복토 2ha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역 농민들은 완전한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배수문 정비 등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농민은 "침수지역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배수개선사업에 나선 광산구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지 않으면 침수 예방은커녕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지역 기관들, 청년 취업 방안 머리 맞댄다

광주시 '청년고용협의회' 개최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이 2일 'I-PLEX 광주'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광주지역 청년고용협의회'를 열고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I-PLEX(아이플렉스) 광주'는 동구 동명동에 위치, 지식·정보통신·첨단제조 분야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도심형 복합산업시설이다.

청년고용협의회는 청년고용정책의 핵심 전달체계 기능과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고용 거버넌스 협의체로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매월 회의를 열고 있다.

그동안 청년실업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업체계 구축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 정책들의 문제점 및 청년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들의 역할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는 ▲청년 창업 수요 발굴·지원 ▲현장밀착형 창업교육 ▲I-PLEX 광주 활성화 ▲창업경진대회 내실화 등 '청년 창업지원'을 주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교육청, 광주테크노파크 등 12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창용 광주고용복지센터 소장은 "기관별 행사계획과 결과를 공유·점검하는 협의회의 고유기능과 함께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매개체의 역할로도 협의회의 가치는 충분하다"며 "논의되는 문제점들은 기관들이 합심해 개선토록 노력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별도의 청년간담회와 대학 순회 고용정책설명회를 9~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이달부터 지방세·수도요금

모바일 앱카드 납부 서비스

이달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바일 앱카드를 이용해 결제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1일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한 납부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는 ▲KB 국민 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설현장 부실시공 줄입시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최근 빛고을고객센터 1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및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공사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결로현상, 각종 설비 부실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도시공사 제공〉

"지하철 고객 감동 스토리 받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공모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가 지하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고객감동 스토리'를 공모한다.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친절 · 감동 에피소드를 자유로운 수필이나 시로 작성하면 된다. 분량은 A4 1~2매이며 1인 2점까지 접수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0월 7일까지로 이메일(railflower@naver.com)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다. 응모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gwangjusubway.c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모작은 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은 20만원, 장려상 3명은 각각 10만원씩 포상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는 10월 24일 예정이다.

공사는 당선작을 사보와 SNS, 각 역사 및 전동차에 게시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전 부서의 팀장들이 매주 1회 역을 방문해 고객의 의견을 듣는 '고객소통데이', 1일 1인당 4명의 고객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CS114운동', 역무원 대상 '고객 감동 에피소드 공모',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마케터 위촉' 등 정부 3.0의 소통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고객만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추석선물하세요"

3~4일 '나눔문화 장터'

광주시는 3일부터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수완 호수공원 일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추석맞이 사회적경제 나눔문화'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나눔문화 장터는 광주·전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곳이 참여하며 전시·판매, 문화공연, 무료체험 등 3개 존(Zone)으로 구성, 운영된다.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장터를 마련했다.

판매품은 친환경 농수산물, 제과, 제빵, 차, EM제품, 수공예제품, 천연염색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이다.

행사를 찾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열린다. 3일 오후 6시에는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이 출연하는 우크렐레, 무용, 뮤라즈 앙상블, 벌룬&버블 등 공연을, 4일 오후 6시에는 통기타, 드럼, 비보이 퍼포먼스, 스쿨댄스, 무예무술 공연 등을 선보인다.

한편, 무료체험 존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도우 다육이 화분, 주물럭 비누만들기, 3D펜 체험, 청소년 적성테스트, 에어 바운스, 민속놀이 등도 진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장터가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고 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강변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 내일 재개

광주시는 광주천과 영산강변에 조성된 자전거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무더위로 일시 중지한 '강변축 거점터미널' 운영을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강변축 거점터미널'은 교량 아래 여유 공간에서 자전거 무상수리, 안전교육, 정보제공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 통합 서비스 센터'다. 영산강·광주천 자전거도로(78.9㎞) 구간에서 운영하며, 상반기에는 25회 운영, 1만 6000여 명의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 거점터미널 운영 장소는 용산교·중앙대교·동천교 등 광주천변 3곳과 첨단교·산동교·어등대교·극락교·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 등 총 8곳이며, 자전거 전문가 2인이 배치돼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주환 광주시 도로과장은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